

[오피니언]

월/요/광/장

강재홍



“산(山)이 모두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이백리로 가로는 천 리에 뻗쳐 있다. 그 꼭대기에 높이 있는데 둘레가 팔십 리다. 남쪽으로 흐르는 것은 압록강, 북쪽으로 흐르는 것은 송화강,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두만강이다.”

이는 1486년에 밟힌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술된 백두산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민족에게 단군 성지로 신성시되어온 천하명산 백두산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관광코스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아쉬움을 남겨주었던 백두산행, 안개 속에 수줍은 듯 숨어 있는 천지연 가는 관광길에 삼지연 공항을 통한 직항로가 열린다면, 그동안 중국의 연길국제공항을 거쳐 꼬박 하루가 걸렸던 긴 여정이 불과 1시간 40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최근 삼지연 공항은 남측의 물자 지원으로 활주로 및 주변 연결도로의 개선공사를 마친 바 있다. 그 결과, 삼지연 공항은 북한 내에서 유일하게 아스팔트 활주

로를 갖춘 공항으로 변모했고, 주변 접근 도로 역시 말끔히 포장되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백두산 관광은 중국 쪽의 천지연에 대한 접근만이 가능해서, 주봉인 장군봉은 오를

백두산에서 南北정상회의를 열자

수 없는 겨우 반죽짜리 산행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직항로가 개통되고 삼지연 공항을 통한 백두산 관광이 본격화된다면, 나아가 북한당국과의 백두산 관광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태고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쳐너립, 희귀한 동식물과 같은 자연의 보고로 동북아 지역에 남아 있는 최후이자 최고의 지역인 백두산을 온전하게 관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백두산 관광에 또 다른 큰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백두산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와, 민족사

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다. 백두산은 또한 오랫동안 만주지역에 터전을 일궈온 만주족이나 거란족들이 왕조의 발상지라 하여 숭배해 온 산이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우리 민족의 미래를 논의할 것을 제안해 본다. 새해 ‘병술(丙戌)년’에 ‘해’의 방위신(方位神)과 시간신(時間神)은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月)로

는 음력 9월을 가리킨다. 더도 덜도 말고 음력 9월이 가기 전에 한반도의 서북서 바로 백두산 영지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환한 미소를 짓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민족의 발상지인 백두산에서 열린다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민족 시대를 알리는 고유제(告由祭)가 되고, 주변 국가들과 여러 이웃하는 민족들에게 자존을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6자회담의 성과를, 상설 회의를 통한 지역 안보,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장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동북아시대를 주도하는 지역협력 체계지도 가능하다. 동북아 개발을 위한 자본과 각국의 여유자금을 이용한 지역개발행을 만들어 북한의 교통 인프라와 대륙교통망을 연결하고, 이는 다시 동북아 번영의 네트워크로 작용할 것이다. 앞

으로 이곳에 동북아시아의 국가 정상들이 함께 모인다면 동북아 개발정상회의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져본다.

장군봉에서 백두산의 장엄한 일출을 바라보면서 영산의 공기를 마시고 천지를 바라본다면 그 어떤 이기심이나 질시, 미움 등이 눈 놓듯이 사라질 것이다. 실타래처럼 얹겨있는 동북아시아의 그 어떤 난제도 이곳에서만은 물레에서 일어나 뿐이지 듯이 솔솔 해결되지 않을까?

〈한국교통연구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고용동반하는 수출활성화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2004년보다 12.2% 증가한 2천847억달러로 집계됐다. 2003년, 2004년에 이어 3년 연속 두자리 수 성장을 기록했으며 무역규모도 세계 12위째로 5천억달러대에 진입했다. 내수가 국도로 침체된 가운데서도 수출이 훌륭히 우리 경제의 베팀복 역할을 해온 셈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수출 실적에 안주할 여유가 없다. 수출 3천억달러 시대와 4천억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세계 무역시장 전망은 돌발 변수가 산재해 있다. 고유가 지속과 달러화 약세 등 악재 투성이에 중국의 급성장 등 더욱 치열한 국제 경쟁을 끊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둔화 우려도 수출감소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우리의 부품·소재 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 없이는 일본 업체들의 배반 불리는 결과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 우리의 주력품목은 선진국과 후발국들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이를 주력품목의 뒤를 이을 새상품 개발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수출시장 다변화 역시 해로운 과제다. 중국과 홍콩, 대만지역수출이 30% 넘는 지역 편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23억달러에 달하는 대형 적자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의 부품·소재 산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 없이는 일본 업체들의 배반 불리는 결과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訪北의지 밝힌 DJ 특사역 할 기대한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어제 “날씨가 좋아지면 평양을 가겠다”며 방북(訪北)의사를 밝히고 “가능하면 기차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방문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새해 인사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 실장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이 방북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것을 크게 환영한다. 그가 노무현 대통령 특사(特使)로서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핵 문제의 난관을 뚫고 남·북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DJ 방북은 남북이 모두 원하는 바다. 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8일 DJ의 방북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북측도 지난해 8월 DJ를 문병(問病)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통해 초청 의사를 거듭 밝혔었다. DJ의 결심만 남은 상태였던 것이다.

북한은 새해 1일자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의 신년 공

동사설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협력적 태도를 보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과 내부의 경제난 등으로 북측이 체제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강화가 매우 절박한 실정이다. 또한 달러 위폐 등의 문제로 북·미 양국 간 대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가장 빠른 시일에’ 개최하자고 했던 지난해 마지막 6자회담의 합의도 접점 실효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착 상태를 끊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도 한층더 필요한 시점이다.

DJ의 방북은 이 같은 문제들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푸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가 기차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남북 간에는 하늘길과 도로, 해로는 뚫렸지만 철길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DJ가 철도를 통해 간다면 그 자체로도 큰 성과이다. 정부는 DJ의 방북이 큰 결실을 거두도록 완벽하게 뒷받침하기 바란다.

無等鼓

정확한 시간을 재는 것은 인류의 여망이다. 그러나 시간은 인류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그레고리우스력의 탄생도 순탄하지 않았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1582년 10월 4일 새로운 억법(曆法)의 시행을 선포했다. 동시에 카이사르 아래 유럽의 시간을 지배해 온 윤리우스력을 폐지했다. 새 억법의 시

행은 다음날인 10월 5일부터. 혼란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레고리우스력은

율리우스력과 실제 계절간 오류를 잡기 위해 무려 열흘이란 시간을 달려면서 지워버렸다. 시행 첫날인 10월 5일이 10월 15일이 된 것이다.

시계시간은 무한한 시간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12개의 달과 365개(또는 366개)의 작은 칸으로 만들어진 달력시간은 시간의 유한함을 말해준다.

인간은 일정 기간 살다가 영원히 죽는다. 새해 새 달력을 면밀히 시간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생각해본다.

/오주승 문화생활부장 jsoh@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61/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박동준



도시의 랜드마크(Land mark)란 어원적 의미로 땅의 표식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상징물인 것이다.

랜드마크는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있다. 자연적인 랜드마크로는 스위스의 알프스, 네덜란드의 힐랄리아 산맥 등을 들 수 있고 인공적인 것으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들 수 있다.

인공적인 것도 크게 상징적인 것과 하늘에 기원을 드리는 심리와 높은 것

의 장소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중국, 동티모르, 대만, 필리핀 등의 인권운동과 민주화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에 아시아문화 전당은 문화중심도시인 광주에 세워짐에 충족되며 손색이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시아문화전당은 축제의 장으로써 광주의 역사가 담겨지고 우리의 전통이 살아숨쉬고 광주 시민의 마음과 정서를 편안하고 포근하게 감싸 안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바로 우리 ‘광주’의 상징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광주 랜드마크를 생각해보자.

광주의 랜드마크(Land mark)

을 추구하는 무한한 인간의 욕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있다.

그럼 서울의 랜드마크는 무엇일까?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 제일 높은 것? 외국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랜드마크를 말하면 한강과 산을 이야기한다.

세계 어느 도시를 봐도 관악산, 인왕산, 아차산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춘 도시를 찾을 수 있고 인공적인 것으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등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전통 역사와 흔을 담아내지 못한 것이 서울의 랜드마크 될 수 있을까?

우리 광주를 보자. 수많은 예술가를 낳고 이들의 혁신과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자 하는 예향광주, 동화혁명에서부터 광주학생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인권과 역사와 혁명의 도시 광주.

분수대와 도청은 녹색 온행일들이 독재의 종결에 짓밟힌 암흑의 장소가 아니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젊은 꽃들이 꽂아놓은 꽃사태처럼 쓰러져간 아름다운 역사

자연적인 랜드마크로 무등산, 입석대 인공적인 것으로 금남로, 5·18추모탑과 묘역, 도청 앞 분수대가 아닐까 싶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광주시의 생각처럼 크고 웅장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아시아문화전당은 작고 아담하고 지하에 있을지도 우리 광주가 살아온 흔적과 역사가 있고 후세들에게 기념이 될 상징물이 되어야 되고 자금을 실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광주’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의 중심에 숲이 있다. 숲에 5·18이 있고 광주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문화가 있다.

광주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빛의 숲’ 당선자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담고 있는 풍피두 센터,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보다 더 아름답고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광주를 사랑하는 건축인으로써 대나무숲을 지나온 바람 소리와 그 속에서 뛰어놀 광주의 아들딸들의 모습을 그려 본다. 〈건축사〉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규정 빨리 마련해야

운전을 하다보면 차량내에 디지털멀티미디어(DMB)를 설치한 차량을 많이 볼 수 있다.

운전중에 DMB를 켜 놓으면 아무리 운전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경이 DMB쪽으로 끌리게 되고, 전방 시선 및 좌우에서 깨어드는 차량에 대해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그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운전자는 휴대전화 통화보다도 DMB시청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운전 중 TV시청을 단속할만한 현행법률이 없다는 점을 알고 많은 이가 설치하고 있다.

이렇듯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늦게 나마 정보통신부에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

닐 수 없다.

운전중 휴대폰 전화는 단속을 하면서 이보다 더 위험천만한 DMB시청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 사용 단속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할 수 있다.

경찰도 DMB시청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간주해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나, DMB시청을 휴대전화 사용으로 해석이 가능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단속을 보상해 줄 수 없다.

운전중 DMB시청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으로 운전중 시청행위를 반드시 규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운전중 DMB시청은 분명 휴대전화 사용이나 음주운전 행위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박용균·나주경찰서 남평지구대

고가의 대학 입시 전형료 ‘한몫 잡자’ 아닌가

최근 원서접수가 끝난 대학들의 전형료를 보면 마치 입시철에 단단히 한몫 보자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에 논술이나 면접고사, 예체능의 실기고사가 없는 대학도 3만원에서 5만원의 전형료를 받는다는데 왜 받으며 어디에 사용되는지 묻고 싶다.

대학측의 이야기로는 입시홍보물 제작비용과 상적전산 처리를 들먹이는데 이는 대학 교직원들이 본연의 일임에도 약자인 수험생에게 대학 예산으로 처리해야 할 입시관리비를 떠넘기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는 정말 적절한 전형료가 얼마나 공정하게 조사해 각 대학에 전형료 수준을 고시했으면 한다.

데 왜 그리 많은 전형료를 받는가.

또 최근 들어 대다수의 대학들이 원서접수와 입시부문, 성적처리가 전산화되어 과거 칭구접수 때보다 훨씬 업무가 줄어 들었거나 없음에도 전형료를 여전히 그대로 받으며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인터넷 원서접수비마저 5천원씩 받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학당국이 인터넷 접수를 실시한다면 자체 서버로 무료로 접수해야 함에도 다른 인터넷사로 응용을 주어 사용료를 지불하게 한다니 정말 대학은 순내라고 고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에서는 정말 적절한 전형료가 얼마나 공정하게 조사해 각 대학에 전형료 수준을 고시했으면 한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수동

불가능하다면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다.